

##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026년 첫 대규모 채용박람회 수원서 개최 430여 명 몰려

2026. 3. 25.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4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 수도권 남부 20여 개 쿠팡 풀필먼트센터 참여 상담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채용'
- 입고·출고·지게차 등 직무 모집 26일 대구, 4월 인천 등 릴레이 박람회 예고

2026. 03. 25.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수원에서 2026년 첫 대규모 채용박람회의 시작을 알렸다. CFS는 지난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단독 채용 박람회에 434명의 구직자가 지원 접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경기광주, 곤지암, 금왕, 동탄, 마장, 시흥, 안성, 용인, 이천, 천안, 청주, 평택 등 수도권 남부 권역을 대표하는 20여 개 쿠팡 풀필먼트센터(FC)가 대거 참여했다. 모집 분야는 입고, 출고, 재고·반품 검수, 지게차 운행, 물류 현장관리자 등으로 청년 구직자부터 경력직까지 폭넓은 인재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 현장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CFS는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취업 상담부터 맞춤형 현장 면접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채용' 시스템을 운영했다. 특히, 풀필먼트센터 업무를 사전에 탐색할 수 있는 '쿠팡 알바관'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CFS는 풀필먼트센터에 AI기반 자동화 기술을 꾸준히 도입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도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CFS는 이번 수원 채용박람회에 이어 26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영남권 인재 채용을 이어간다. 오는 4월에는 인천 지역에서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